

시선

사설

예상 밖의 대학평가 결과, 최소한의 설명은 있어야

지난 10월 6일, 구성원에게는 대학 명의로 된 한 통의 이메일이 배포됐다. THE세계대학평가 결과에서 우리 대학이 국내 대학 6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이와는 사뭇 달리, 중앙일보 대학평가결과가 발표된 지 2주의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대학에서는 그 어떠한 이야기도 내놓지 않고 있다. ‘대학평가’라는 같은 사안에 대해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물론 이번 중앙일보 대학평가는 외견상 드러나는 ‘순위’ 부분에서 경쟁대학의 분교 캠퍼스에도 밀리는 예상 밖의 결과를 얻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모든 종류의 대학평가에서 정말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순위가 아닌 지표이고, 평가결과는 곧 현재 우리학교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짚어보는 가늠자 역할로 활용하는 것이 학교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자세다.

그렇다면, 대학은 평가의 순위가 어떻게 드러난 지표 속에 함의되어 있는 의미를 직시하고 이에 대한 대학의 입장과 향후 운영방안 및 비전을 구성원에게 설명해주는 것이 마땅한 태도다. 이런 설명이 선행되어야 그 이후로 구성원 간에 학내의 다양한 지표 현황을 둘러싼 건전한 논의와 토의가 이어져 조직 건전성이 향상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내 대학 11위라는 ‘수치의 충격’ 앞에 이 모든 흐름이 정지돼버린 것이 작금의 모습이다. 대학은 교수회하나 직원노조에서도 덩달아 유구무연의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 학생들 역시 드러난 지표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으려하기 보다는 ‘대학평가 거부’라는 캠페인을 진행하며 ‘캠퍼스 바깥’으로의 움직임만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각종 대학평가를 둘러싼 구성원 간의 상이한 이해와 요구가 지속적으로 맞부딪히며 제기돼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것이 학교를 위한 건강한 에너지로 모아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된다고 하겠다.

그것을 주도해야 하는 것은 명백히 대학이다. 대학평가의 의제와 관련하여 모든 정책적 권한을 쥐고 있는 것이 대학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해야 할 대학이 입을 다물고 있음으로 인해 구성원 사이에서도 아무런 의견의 응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우리 상황인 것이다.

사실 그동안 대학은 대학평가와 연계되는 학내의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구성원 앞에 털어놓고 토론을 열거나 조연을 구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 결과 ‘교육여건 향상’을 요구하는 구성원의 목소리와는 달리 학교 정책은 교수·연구 부문에 치중하는 형태로 이뤄져 왔다. 그리고 이제 다시 대학은 중앙일보 대학평가로 드러난 결과 값을 갖고 대안적 움직임을 도모해갈 것이다. 그 과정에서, 구성원과의 긴밀한 소통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전체 구성원과 함께 우리대학이 지닌 약한 부분들을 객관적이고 냉정한 관점에서 바라보며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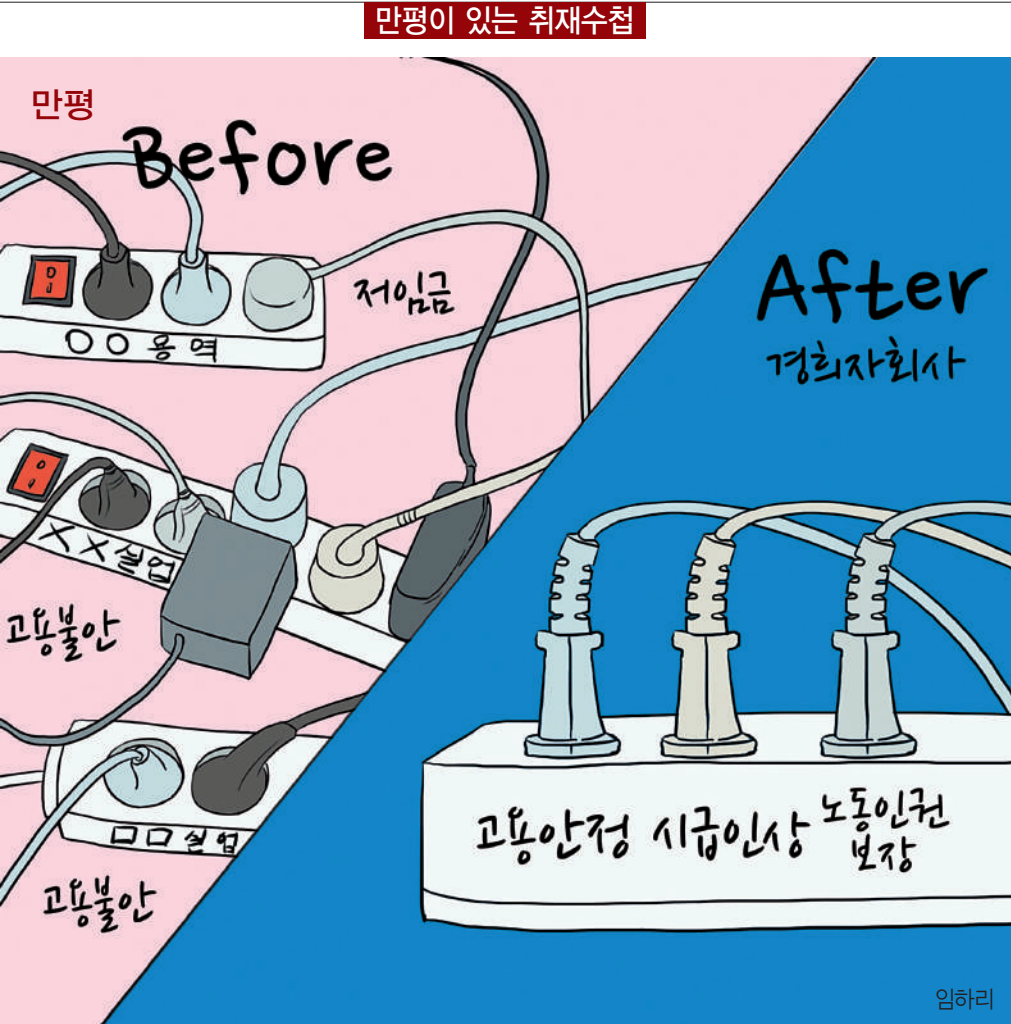
소통의 바탕 위에 세워진 정책은 구조적으로 견실하기 마련이다. 이번 대학평가 결과를 그 시작으로 삼기 위해, 지금은 우리학교의 현황과 현실에 대해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모을 때다.

제때 반납 안 되는 도서관
전공서적에 구성원 불만

미디어 여론동향 2015. 10. 19 ~ 10. 30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종이접기 아저씨’로 유명한 종이문화재단 김영만 평생교육원장의 ‘힘내라, 코팍지!’ 토크 콘서트가 지난 27일 서울캠퍼스(서울캠) 네오르네상스관에서 열렸다. (‘종이접기 아저씨’가 전하는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대학주보 온라인, 2015.10.28) 토크 콘서트는 가을대동제의 일환으로 서울캠 총학생회가 주최했다. 김 원장은 늦은 나이에 종이접기를 시작한 이후 총 3번의 ‘기회’가 찾아왔다고 한다. 첫 번째 ‘기회’는 사립초교에서 아이들에게 종이접기를 가르치며 소통하는 법을 배운 것이었다. 두 번째는 그의 종이접기 수업이 화제가 돼 ‘TV유치원 하나 둘 셋’으로 방송활동을



이주의 주제 - 학내 청소노동자 직고용

노동자들의 일터는 바로 여기, 경희대학교



최재원 기자
jankin1997@khu.ac.kr

지난달 5일 제4회 사다리포럼에서 우리학교와 희망제작소가 청소노동자 직고용을 약속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16년까지 학교법원에서 자회사를 설립, 청소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경희모델’을 세우고, 2017년부터 청소노동자를 직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경희모델’이 성공적으로 안착된다면 그동안 용역관행으로 몸살을 앓던 대학가에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직접 고용을 학교로부터 다짐받기까지 청소 노동자들은 쉽지 않은 싸움을 계속해왔다. 2013년 11월 18일 용역업체와의 첫 단체협상을 시작으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서경지부) 측은 여러 차례에 걸친 교섭을 시도했다. 하지만 2014년 1월까지 이어진 여덟 차례의 협상이 모두 결렬됐고 용역업체 측에서는 기존 시급인 5,700원에서 겨우 100원 만을 인상해준다는 말만을 남기고 귀를 닫았다. 결국 서경지부는 총파업을 단행했다. 지난해 3월 개강과 동시에 본관을 메웠던 노동자들의 외침의 배경이다. 이런 지난한 과정 끝에 청소노동자의 월급은 87만 원에서 146만 원으로 오르고, 1년에 30건이었던 용역업체의 해고 건수도 약 5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아직도 청소노동자 측과 용역업체 간의 불화는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고용불안’은 청소노동자가 용역으로 변경된 이래 해결되지 않은 채 문제로 남아있다. 때문에 매년 6개월을 훌쩍 넘겼던 단체협상 과정에서, 청소노동자들은 피곤함과 두려움을 호소해왔다. 이런 맥락에서 경희모델은 청소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나아가 부당지시나 잘못된 노동관행을 뿌리 뽑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더불어 그동안 직고용의 걸림돌이었던 ‘재정’에 대해서도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대학이 청소노동자를 용역화한 이유도, 이후에 청소노동자들의 직고용 요구에 난색을 표한 근거도 모두 ‘재정부담’이었다. 이런 문제가 지금 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 특별한 대학 재정에서 특별한 수익원이 마련된 것도 아니다. 따라서 그동안 우려했던 재정부담이 청소노동자 직고용으로 과연 발생하는지, 발생한다면 그런 부담을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삭감 없이 적절한 처우를 보장할 수 있는지 미리 따져 봐야 한다.

이밖에도 청소노동자 대다수가 고령인 점도 고민해봐야 하고, 현재의 청소노동자 인력이 캠퍼스를 모두 관리하는데 충분할지도 검토해봐야 한다. 아직 갈 길이 멀다. 경희모델이 진정으로 박수받기 위해선 남은 기간 동안 짚어 봐야할 점이 이처럼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걸어본다. ‘청소노동자’의 일터가 바로 이곳, 경희대이고 그들 역시 구성원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경희모델이 구현하기를.

하게 된 것이며, 세 번째가 바로 ‘마이 리틀 텔레비전’(마리텔) 출연이었다. 김 원장은 “인생에는 여러 번의 기회가 오는데 그제 ‘실’일 수도 ‘뽕줄’일 수도 ‘기둥’일 수도 있다”라며 “하지만 그제 무엇이든 일단 잡아야한다. 튼튼한 기둥이 내려오기만을 기다리는 건 늙음이다. 젊은이라면 과감히 실패도 잡아야한다”고 당부했다.

페이스북 경희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지에는 전공도서 반납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실태에 대한 불만 글(#경희숲_11409, 2015.10.26)이 인기를 끌었다. 글쓴이는 ‘전공서적 대출일이 9월 25일인데 아직도 반납을 안 한 사람이 있다. 학기 내내 연체료 내고 도서관 책을 혼자 보겠다는 심보인 것 같은데 정말 심각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글에는 ‘종ായ오’ 24개가 늘렸다. 댓글로는 ‘가끔 수업시간에 보면 도서관 책에 밀줄 구고 필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행동하나’, ‘전공서적을 연체할 경우 연체료를 복리 등비수열로 매기자’라는 내용이 있었다.

취업의 어려움을 털어놓은 글(#경희숲_11437, 2015.10.29)도 많은 공감을 얻었다. 글쓴이는 ‘상반기

에 서류를 30개 썼는데 딱 하나 통과됐고, 그마저도 인적성에서 떨어졌다’며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선 더 대단한 사람이 많은가보다. 동기들은 대기업도 잘만 가는데 나는 왜 제자리걸음일까. 서류조차 붙지 않으니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겠다’고 적었다. 187개의 ‘종ായ오’를 기록한 이 글에는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다. 힘든 거 알지만 그래도 힘냅시다’라는 댓글이 달렸다.

장익경(의학 73) 동문이 미국 하버드대학교 석좌교수로 임명됐다.(장익경 동문, 하버드의대 정교수 이어 석좌교수 임명/대학 홈페이지 Focus, 2015.10.29)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 겸 우리학교 석좌교수인 장 동문은 1983년부터 심근경색증과 같은 급성관동맥증후군의 조기진단과 치료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최근에는 심근경색 발생을 약물치료를 줄일 수 있다는 임상연구 결과를 발표해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다. 장 동문은 1980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교환학생으로 간 벨기에 루벤대에서 7년 간 심장내과를 전공했다. 이후 1987년부터 현재까지 메사추세츠 제너럴병원 심장내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몸에 좋은 것은 입에 쓰다,
요즘에도 그렇다

세시봉

박기운 <파트장>



‘양약고구 충언역이(良藥苦口 忠言逆耳)’라고 했다. 좋은 약은 입에 쓰고 바른 말은 귀에 거슬린다는 의미다. 이것은 셀 수 없이 많은 정보가 범람하는 이 시대에 특히나 마음속에 새겨야 할 금언이다.

하루에만도 폭발적으로 쏟아지는 모든 정보를 일일이 신경 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더 재미있고 자극적인 사건들에 먼저 시선을 던지기 마련이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사건들일수록 지루하거나 어렵게 느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 해석을 위해 전문 용어나 수치, 맥락, 정확한 독법 등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회성 가십 뉴스에 비해 확연히 ‘재미 없는’ 이런 정보를 무심하게 지나치곤 한다.

국정감사 기간에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세금이 잘 못된 곳에 사용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국방예산처럼 수십 조 원을 넘나드는 큰 규모의 사업에서부터 공기업 사장의 운전기사 월급과 같은 상대적으로 소소한 사건들에 이르기까지 행정부의 전 방위적인 분야에 걸쳐 감사가 이뤄지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정감사라는 것을 진행하나 보군’ 정도의 관심만 있을 뿐, 그 상세한 내용에 대해선 대체로 무관심한 실정이다. 심지어 국정감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다. 그러다 보니 정치인들은 자극적이고 이목이 집중될 수 있는 이슈만을 다루고 싶어 한다. 정작 국민의 삶에 밀접하고 중요한 안건에 대한 관심도는 떨어져 간다.

국정교과서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이 사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거리로 뛰쳐나가는 것은 일부 학생들과 시민단체 회원들뿐이다. 아마 국정이니 검정이니 인정이니 하는 개념이나 ‘국정 교과서’를 둘러싸고 있는 역사적, 세계적 맥락이 이 사안에 대해 자기 의견을 갖는 데 진입장벽이 되었을 것이다.

‘재미없지만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안’들은 학내에도 쌓여있다. 학생회 자치회비 사용내역 공개 여부에 대한 문제, 대학구조개혁이나 전임교원강의담당비를 같은 문제 등 대학의 교육여건이나 학습편의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무수한 사안들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의 수는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대학평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학생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순위’에만 관심이 있을 뿐, 그 안에 숨겨진 진정한 의미와 우리학교의 나아갈 바에 대해서는 별다른 고민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물론 ‘지루하고 어렵기 때문’이다. 시간을 들여 알아보고 공부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든 내용일 뿐더러, 이런 이슈보다는 당장의 내 학점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단지 ‘어렵다’는 이유로 계속 피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지루함과 어려움을 견뎌내고 지속적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재미없고 지루할지라도 의미 있는 이슈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보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http://www.mediakhu.ac.kr/khunews/inform_us_list.asp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편집인 조인원 | 주간 김민전 | 편집장 박승철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경영 02-441-7317(미래71회)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기1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사천동)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